

◇ 추도시

五言古詩一首

劉克明

高畋喜 옮김

中國科學院의 외국인 院士인 영국의 저명한 中國科學史家 李約瑟(Joseph Needham) 박사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노라니 남다른 깊은 정회가 연이어 떠오른다. 이제 春蠶은 실이 다했고 燭淚도 다 말랐다. 이에 五言古詩 한 수를 지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캠강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오열하노라.

大人이 아무리 高齡이라 할지라도, 哲人의 他界를 통탄하도다.

北邙山엔 어찌하여 무덤이 그리도 총총한가, 江山의 눈물이 마를 날 없네.

바야흐로 龍이 飛翔을 기대하며, 學界는 그이를 우러렀노라.

어릴 적부터 학업에 뜻을 둔 그이, 비범한 재능이 남달리 뛰어났었네.

하늘이 맺어 주어, 晩年에 再婚¹⁾의 기쁨을 누렸도다.

지혜가 뛰어나고 근면했으며, 학식이 해박하고 심오했었네.

中西의 역사에 두루 정통하여, 가슴 속에 萬古의 情을 품었어라.

학문을 닦음에 엄밀했고, 강의에는 虛心으로 임하였다.

사람됨이 더없이 겸허하고, 각별히 是非가 분명하였네.

근거없는 빈 말은 한 적이 없고, 路困을 마다 않고 만리길을 내쳐왔어라.

말 한마디 타인을 헐뜯지 않고, 先學을 욕되게도 하지 않았지.

六十 星霜 저술에 힘쓰노라, 첫닭 우는 五更이면 자리에서 일어났네.

세계의 판도를 다시 그리기를, 東西에서 모두 그이에게 기대했노라.

위대한 업적은 저술로 빛나고, 그이의 가르침은 後學들을 계도하리.

古수를 크게 滴定²⁾하신 이, 세상에 이런 분이 몇이나 있을런가?

누구인들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丹心은 靑史에 드리웠네.

지닌 뜻 영영 사라졌지만, 賢人의 업적은 천만년 기려지리.

* 이 추도시는 중국 「瑜珈詩苑」 11(1997. 6)에 실린 “五古一首”를 번역한 것이다. 지은이는 華中理工大學 哲學系 교수, 옮긴이는 한림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이다.

역주: 1) 1987년 부인 도려시가 죽었고, 1989년에는 魯桂珍과 재혼했다. 이 때 나이는 89살, 魯는 85살이었다.

2) 나덤의 논문집 *The Grand Titration*(1969)에서 딴 말.

註釋

1. 「周易」에 “乾卦의 다섯째 陽爻에서,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大人 보는 것이 이롭다”라는 말이 있고, 象(「주석」)에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大人의 道이다”라고 하였다.
2. 니덤의 부인 도러시(李大斐)가 죽은 후, 1989년에 니덤은 魯桂珍과 재혼하였으니, 東西의 연분을 맺은 것이요, 출중한 인물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3. 1974년 니덤은 홍콩대학에서 영어로 학술강연을 하면서 孔子의 仁民愛物の 위대성을 재삼 강조하였는데, 그는 明代 학자 顧炎武의 「論學」 가운데 나오는 “선비로서 부끄러움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는다면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중국어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원문>

忽聞中國科學院外籍院士，英國著名中國科學史家李約瑟博士去世，深爲驚駭，憑窓靜坐，結想殊深，春蠶絲盡，蠟淚已干，勉成五古一首，以志曷勝哀悼之忱。

我思劍河水，嗚咽發哀音。
九五是高壽，哲人恨入冥。
北邙何壘壘，河山洒淚頻。
方期見龍飛，學業仰士林。
少年志於學，才高八斗盈。
蒼天巧安排，垂老喜完姻。
叡智且勤奮，博大復精深。
涵浸中西史，胸存萬古情。

爲學當謹嚴，講筵見虛心。
爲人甚謙和，是非倍分明。
不爲空言語，萬里赴風塵。
不作一字貶，士不辱先人。
著述六十載，五更聽鷄鳴。
重繪世界圖，東西賴此君。
偉業昭簡冊，身教啓後昆。
古今大滴定，舉世能幾人。
人生誰無死，丹心照汗青。
抱志去不還，千載頌斯文。

注釋：① 《周易》“九五，飛龍在天，利見大人”。象曰：飛龍在天，大人道也。

② 1989年，李約瑟夫人李大斐去世後，李約瑟與魯桂珍結爲伉儷，東西姻緣，珠聯璧合。

③ 1974年，李約瑟到香港大學講學，再三強調孔子仁民愛物的偉大，他用英文演講還不算，又用中文誦述明代學者顧炎武《論學》中的“上而不先言恥，則爲無本之人”。